

행복을 좇는 인간 Vs. 인공지능

‘참된 행복’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참나(眞我)’를 마주할 때만 얻을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온전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 따라 일렁이지 않는 깊은 심연처럼, 일상의 기쁨이나 슬픔에 휘말리지 않는 ‘고요함’이며 ‘평화’다.

알파고 이후 ‘딥러닝’은 우리에게 상식이 되었다. 인공지능의 핵심 전략인 딥러닝은 기계(machine) 스스로가 경험을 축적해 가며 학습하고 판단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아무리 숙련된 프로그래머의 알고리즘도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제 Who am I(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스스로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규정할 수 있는 강 인공지능(strong AI) 로봇의 시대가 현실화 될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는 인간의 미래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눈앞에 다가온 신기술의 시대가 우리를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테크노피아(technopia)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신의 노여움을 사는 21세기 바벨탑이 되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인가? 너무도 빠른 기술의 속도에 압도되어 혼미한 시점에서 어느 때 보다 인간 스스로 ‘우리의 존재적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 추구’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행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일관되게 행복이 물질적 풍요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수많은 환경적 스트레스와 혼란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위안의 수단으로서 ‘행복’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누구나 달성해야 할 삶의 목표로서 ‘행복’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수단적, 집착적 접근은 진정한 행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만 할 뿐이다.

‘참된 행복’은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정서(emotion)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정서들은 원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아무리 큰 기쁨도 얼마간 지속되지 못하고, 유인가가 제거 되면 바로 사라지고 마는 이유다. 따라서 지속된 즐거움이나 그런 감정의 축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참된 행복’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참나(眞我)’를 마주할 때만 얻을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온전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바람 따라 일렁이지 않는 깊은 심연처럼, 일상의 기쁨이나 슬픔에 휘말리지 않는 ‘고요함’이며 ‘평화’다.

어떠한 기술의 진보도 우리를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멋진 신세계’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이 내면의 문제이듯 행복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시대에 창출되는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정치적 쟁점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개체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군지 더욱 명확해질 때 우리는 우리 행동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기술은 경쟁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게 될 것이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인간의 유일하며 종국적 목적은 행복이다 _ 헤르만 헤세



James Roh

